

특성화고 취업지원 운영 방안

최동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연구위원

** 본고는 최동선 외(2010), 『전문계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특성화고 취업지원 운영 방안

《요 약》

- 특성화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인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진로지도' 또는 '취업지도'가 위치해야 함. 기존의 기능 중심의 특성화고 교육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활동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임.
- 이러한 방향성은 높은 취업률의 성과를 보이는 특성화고의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이들 학교가 갖는 주된 특징은 ①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 ② 학교 졸업 후의 비전(진로경로)의 구체적인 제시, ③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자격 취득 지원, ④ 학과별 특성을 극대화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⑥ 산학협력 인프라의 구축·운영, ⑦ 단계적·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⑧ 산업체 경험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에서의 효과적인 취업지원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특성화고 취업지원 운영 방안

I. 서론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고(舊전문계고)는 7~80년대의 인력양성 기능이 쇠퇴하면서 1990년대 이후 정체성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비록 1990년대 중반 이후 특성화고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계속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높은 진학으로 인한 낮은 취업률의 가속화는 특성화고의 정체성 및 본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은 취업률의 현상은 특성화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며 최근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야기한 경향이기도 하다.¹⁸⁾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성에도 연계되어 있다. 2006년에 발표된 『비전 2030』에서는 청년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상대적으로 늦어 국가 수준의 인력활용 및 개인 차원의 생애 생산성 제고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직업교육체제의 혁신과 대학진학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전문계고(특성화고)→취업(직장)→대학(또는 평생교육)의 순환식 교육체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최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에서도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 취업,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손실 초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에 강한 매력적인 직업교육 운영”의 방향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특성화고 정책에서의 취업기능 강화로의 변화, 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따른 성과가 분명하게 도출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특히 이들 지원사업들이 ‘취업지원’ 또는 ‘진로’를 중요한 핵심용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준비도나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¹⁹⁾ 특성화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

18)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90년대 중반까지 전체 졸업생 대비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19.2%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http://cesi.kedi.re.kr/>).

19) 전통적으로 ‘진로지도’는 취업이라는 특정한 순간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활용되어 왔음. 하지만 취업지원을 재학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을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활동이라고 규정하면, 그 핵심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로 ‘진로지도’를 위치할 수도 있음. 후자와 같은 상호관계는 지금은 폐지된 산학연계법

행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인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 자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진로지도' 또는 '취업지도'가 위치해야 한다(Hiebert & Borgen, 2002). 즉, 기존의 기능(technique) 중심의 특성화고 교육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활동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교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현황

1. 개요

특성화고 학생의 졸업 후 진로경로는 '대학 진학률 증가, 취업률 감소'로 설명된다.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1990년에 76.7%에 달하던 취업률은 2010년에 19.2%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학 진학률은 6.3%에서 71.1%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2009년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학급당 20.9명이 진학하는 반면, 4.7명만이 취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취업률의 감소 추이로 인하여 취업자의 규모는 20년 전의 13.1%, 10년 전의 17.0%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특성화고의 정체성과 성격에 관한 다수의 논의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무직자'와 '미상'의 비율이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는 경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에 4.4%에 불과하였던 무직자 및 미상 비율은 2010년에 9.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통계집계의 오차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진학이

(School-to-Work Opportunity Act of 1994)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사이의 개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이는 '취업지원' 활동이 특정한 순간에만 적용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인식이나 진로탐색을 기반으로 할 때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특성화고를 비롯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더욱 분명하다는 인식에 터한 것임. 하지만 현재의 정책적인 흐름이 직업교육기관→노동시장 진입(취업)을 강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지도' 또는 '취업지원'을 일차적인 핵심용어로 사용하였음.

20) 2008년도 3학년 학급수인 5,330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학급당 진학자 수는 111,348명/5,330개=20.9명, 학급당 취업자 수는 25,297명/5,330개=4.7명으로 산출되었음.

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졸업생의 규모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 추이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전체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	미상	무직· 미상비율
		진학률	취업률						
1990	274,150	22,710	8.3	210,113	76.6	1,402	16,108	23,817	14.6
1995	259,133	49,699	19.2	190,148	73.4	333	7,582	11,371	7.3
2000	291,047	122,170	42.0	149,543	51.4	523	10,508	8,303	6.5
2005	170,259	115,164	67.6	47,227	27.7	393	4,327	3,148	4.4
2006	162,600	111,601	68.6	42,151	25.9	402	5,348	3,098	5.2
2007	158,708	113,487	71.5	32,075	20.2	435	8,777	3,934	8.0
2008	158,408	115,407	72.9	30,036	19.0	925	9,804	2,236	7.6
2009	151,410	111,348	73.5	25,297	16.7	962	11,410	2,393	9.1
2010	156,069	111,041	71.1	29,916	19.2	865	9,580	4,667	9.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2. 성별 진로 현황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진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취업 비율이 높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취업률은 17.2%인 반면, 여학생의 취업률은 21.4%이며, 취업자 규모에서도 남학생의 14,469명보다 여학생이 15,447명으로 더 많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여학생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경험적인 현상들, 대학 진학이라는 직업 획득이나 사회적 지위 결정의 중요한 순간에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동선·방혜진, 2009). 하지만 여학생의 진학 위주의 진로선택 경향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녀간 취업률 차이도 2003년의 12.7%에서 2010년에는 4.2%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표 2〉 전문계고 졸업생의 성별 진로 현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전체	진학자		유형별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미상	입대자
		진학률	전문대	교육대 +대학	각종 대학 등	취업률				
남학생										
2003	96,887	61,490	63.5	40,540	20,447	503	30,928	31.9	4,218	251
2010	83,886	60,070	71.6	39,520	19,997	553	14,469	17.2	8,482	865
여학생										
2003	92,623	47,744	51.5	29,794	17,625	325	41,284	44.6	3,595	-
2010	72,183	50,971	70.6	32,239	18,258	474	15,447	21.4	5,765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3. 산업별 취업 현황

특성화고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 현황은 광공업, 특히 제조업 중심의 강한 취업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63.5%, 여학생의 53.8%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이 다수 취업하는 산업 분야는 도·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산업별·성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자 규모 및 비율

(단위: 명, 괄호는 %)

구분	2009년			2010년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취업자	25,297	11,145	14,152	29,916	14,469	15,447
농림어업	352 (1.4)	303 (2.7)	49 (0.3)	317 (1.1)	231 (1.6)	86 (0.6)
광공업	12,560 (49.7)	6,166 (55.3)	6,394 (45.2)	17,499 (58.5)	9,181 (63.5)	8,318 (53.8)
건설업	962 (3.8)	671 (6.0)	291 (2.1)	920 (3.1)	686 (4.7)	234 (1.5)
도소매/음식/숙박업	3,148 (12.4)	897 (8.0)	2,251 (15.9)	3,225 (10.8)	1,223 (8.5)	2,002 (13.0)
전기/운수/통신/금융	2,636 (10.4)	1,154 (10.4)	1,482 (10.5)	2,545 (8.5)	1,194 (8.3)	1,351 (8.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546 (14.0)	1,298 (11.6)	2,248 (15.9)	3,425 (11.4)	1,299 (9.0)	2,126 (13.8)
기타 서비스업	2,093 (8.3)	656 (5.9)	1,437 (10.2)	1,985 (6.6)	655 (4.5)	1,330 (8.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이러한 『교육통계연보』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한 특성화고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현황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타의 출처를 통해서도 특성화고 졸업자의 ‘제조업’ 중심의 취업현황은 발견되고 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소매·숙박 또는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분야로의 취업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첫 번째 일자리의 산업 분야는 광공업(34.4%), 도소매·숙박(3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19.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별 취업현황(경찰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명, %)

구분	전체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숙박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전기·통신·운수·금융	
경제활동인구 조사	700,806	0.4	34.4	65.3	4.2	32.3	19.3	9.4
청년층 부가조사(2010.5)								
15~29세 기준								
남	327,996	0.8	39.4	59.8	6.8	28.9	14.6	9.4
여	372,811	0.0	29.9	70.1	1.8	35.4	23.5	9.4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0. 5) 자료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15~29세 청년층이 보고한 첫 직장의 산업별 분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4. 직업별 취업 현황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직업별 취업현황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성별 분리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남학생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4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1.7%), 서비스 종사자(9.8%)의 순으로, 여학생은 사무 종사자(28.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6.6%), 서비스 종사자(14.6%)의 순으로 직업별 취업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표 5〉 직업별 · 성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자 규모 및 비율

(단위: 명, 괄호는 %)

구분	2009년		2010년	
	남	여	남	여
전체 취업자	11,145 (100.0)	14,152 (100.0)	14,469 (100.0)	15,447 (100.0)
관리자	0 (0.0)	6 (0.0)	0 (0.0)	0 (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5 (2.5)	165 (1.2)	16 (0.1)	6 (0.0)
사무 종사자	443 (4.0)	4,294 (30.3)	393 (2.7)	4,421 (28.6)
서비스 종사자	1,156 (10.4)	2,588 (18.3)	1,423 (9.8)	2,252 (14.6)
판매 종사자	326 (2.9)	1,042 (7.4)	533 (3.7)	1,055 (6.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7 (1.0)	31 (0.2)	150 (1.0)	39 (0.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775 (42.8)	2,403 (17.0)	5,787 (40.0)	2,544 (16.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165 (28.4)	2,646 (18.7)	4,580 (31.7)	4,108 (26.6)
단순노무 종사자	531 (4.8)	976 (6.9)	1,238 (8.6)	1,019 (6.6)
군인	367 (3.3)	1 (0.0)	349 (2.4)	3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그런데 2010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주된 취업 직종은 남학생이 서비스 종사자(22.8%)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22.3%) > 단순노무종사자(21.6%), 여학생이 사무종사자(30.0%) > 서비스 종사자(20.2%) > 판매종사자(18.8%)의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학교가 인식하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직종과 학생들이 보고하는 직종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서 재학생에게 충분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6〉 전문계고 졸업생의 직업별 취업현황(경찰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명, %)

구분	전체 (단위: 명)	전문·기술· 행정 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0.5)	700,806	4.5	18.5	21.4	14.1	0.2	9.6	15.9	15.6
15~29세	327,996	1.6	5.5	22.8	8.8	0.3	17.1	22.3	21.6
남	372,811	7.0	30.0	20.2	18.8	0.2	3.0	10.3	10.4
여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10. 5) 자료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15~29세 청년층이 보고한 첫 직장의 직업별 분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이러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구조에서의 변화양상에도 불구하고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등의 판매직, 자동차정비원, 용접원, 건축목공,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등의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자동차운전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조립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등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대표적인 직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2008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활용하여 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 규모를 성별로 분류하여 상위 20만을 제시한 것이다.

〈표 7〉 특성화고 졸업자의 주요 직종 (단위: 명)

남성 다수 직업		여성 다수 직업	
직업명	종사자 수	직업명	종사자 수
09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154,441	1031 상점판매원	169,054
1031 상점판매원	122,524	0272 경리 사무원	111,813
0252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65,140	1311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84,917
1552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64,602	1322 웨이터	75,687
1540 자동차 정비원	61,433	1041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51,008
147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60,351	1212 미용사	49,806
0931 택시 운전원	54,881	2290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42,551

<표 계속>

남성 다수 직업		여성 다수 직업	
직업명	종사자 수	직업명	종사자 수
1014 제품 및 광고 영업원	53,506	1323 주방 보조원	37,826
1641 용접원	53,256	0330 보험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35,435
2311 곡식작물 재배원	45,695	1970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조립원	35,433
0251 자재관리 사무원	42,028	1319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33,772
0940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38,564	0681 간호조무사	21,884
1426 건축 목공	34,646	1131 청소원	20,839
0932 버스 운전원	33,196	0281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20,044
0243 총무 사무원	33,026	0292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19,492
1120 경비원	32,747	1052 방문 판매원	15,765
1521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29,035	1853 재봉사	13,943
1922 내선전공	28,458	0243 총무 사무원	13,897
1041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28,301	1059 기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13,654
1450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26,969	0323 출납창구 사무원	13,639

주: 직업명과 함께 제시된 4자리의 코드번호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 코드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원자료.

5. 임금

현재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한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특성화고 졸업생만을 추적하여 그들의 졸업 후 취업현황 등을 조사하는 사례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몇 가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 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인지를 묻는 문항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한 일자리(임금근로자)에서의 보수를 가늠할 수 있다.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특성화고 졸업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평균 139.6만원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이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

업생의 월평균 임금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월평균 110.5,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월평균 128.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학력별 임금격차는 2003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일자리에서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학력별 임금격차는 최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력별 임금격차는 특성화고 고교생의 진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8〉 학력구분별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 (단위: 천명, 만원, 15~29세 기준)

연도	특성화고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 전체		
	사례 수	평균 임금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임금	비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임금	비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임금	표준 편차
'03.8	964	110.2	44.1	937	117.5	106.6	46.3	858	142.2	129.1	56.9	4,098	112.8	52.9
'04.8	896	114.4	45.4	994	122.2	106.8	45.5	918	150.2	131.3	55.6	4,080	119.6	55.4
'05.8	817	118.6	49.2	1,005	125.9	106.2	48.5	893	158.7	133.8	67.8	4,010	123.3	59.5
'06.8	701	123.9	47.7	1,024	134.4	108.4	50.1	939	157.3	126.9	60.3	3,891	128.3	58.7
'07.3	695	125.8	51.6	1,079	137.2	109.1	51.5	982	163.5	130.0	65.8	3,826	135.2	61.2
'07.8	629	125.2	48.2	1,099	139.4	111.3	49.9	949	166.6	133.0	67.0	3,892	133.5	63.2
'08.3	599	128.0	50.0	1,039	146.3	114.3	52.8	1,013	176.6	138.0	76.0	3,733	140.5	67.1
'08.8	555	132.5	49.5	1,009	147.1	111.0	48.9	1,010	180.8	136.5	72.4	3,756	142.1	67.5
'09.3	501	135.2	52.7	1,025	146.4	108.3	52.2	1,024	177.0	130.9	80.1	3,567	144.0	68.7
'09.8	472	137.5	48.8	1,021	146.9	106.8	48.8	985	173.9	126.5	72.3	3,663	139.5	65.9
'10.3	468	135.5	46.8	989	151.1	111.5	55.3	1,035	179.7	132.6	90.9	3,549	146.3	73.7
'10.8	429	139.6	50.0	976	154.3	110.5	55.1	999	179.1	128.3	77.0	3,627	145.4	69.6

주: 1) 중졸 이하(고교 재학중퇴 포함), 대학 재학중퇴·휴학,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학력구분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전문계고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합계는 청년층 전체와 동일하지 않음

2) '비고'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환산할 때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임.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Ⅲ. 특성화고 취업지원 운영 사례의 주요 특징

특성화고에서 취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우선적인 성과는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특성화고는 독자적인 취업지원 운영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사례는 다른 학교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2008~2010) 취업률의 평균이 40%가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및 관련 문헌을 통한 분석과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른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우수한 신입생은 단지 중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교의 특성이나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가 입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더욱 성과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졸업 후의 비전(진로경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위 특성화고에서의 진로경로 또는 비전은 몇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떠한 직종으로의 취업이나 진학이 가능한가에 관한 정보이다. 대부분의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학과별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졸업 후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는 학교 재학 기간 중의 학습에 관한 정보와 졸업 후의 진출 가능한 경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의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지만 졸업 후의 경로 또한 다차원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두 번째의 측면에서의 진로경로는 졸업생이나 유관 산업체 관계자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접근 방법이다. 흔히 ‘멘토링’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한 다양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인 멘토링의 방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멘토(mentor)’가 갖는 특성이나 방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학생들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졸업 후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비전의 측면은 단위 학교가 표방하는 ‘특성’에 관한 부분이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화가 신입생이나 재학생에게 거시적으로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가 지역사회나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을 적절하게 수립하느냐의 측면은 학교의 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경로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것도 우수 취업률 특성화고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증권투자상담사, 물류관리사, 파티플래너, 정보기술자격(ITQ), MOS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들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들은 통상적인 국가기술자격이 갖는 노동시장에서의 통용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조건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자격은 노동시장에서의 희귀성이 알려지면서 자격취득이 갖는 홍보효과도 매우 높다는 성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취득이 학교의 특성과 유리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격취득의 경로가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학과별 특성을 극대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직무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직무능력은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운영되느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학과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학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 학습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노동시장에서의 통용성이 높은 자격과의 연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많은 학교들이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학과별 특성을 극대화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단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다섯째, 산업체 및 재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우리의 직업교육훈련 체계에서 고교 단계의 학습 프로그램은 학교 밖에서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많은 경우 가정적 배경에서의 여유가 많지 않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개설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산업체 또는 재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다양한 산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특성화고는 평균 4~5개의 산업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산학연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특성화고 산업체와의 협약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수 취업률 특성화고에서도 산학협력을 중요한 인프라로 강화하고 있다. 단 이러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이 단순한 MOU 체결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비롯한 교육훈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학교에서의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위한 인적자원(예: 산학점임교사 등)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학년별 단계적·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 취업률 특성화고에서 발견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우 다양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우수 취업률 특성화고에서는 이러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한 기반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나 프로그램의 양이 아닌,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훈련의 내용과 연계된,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틀로써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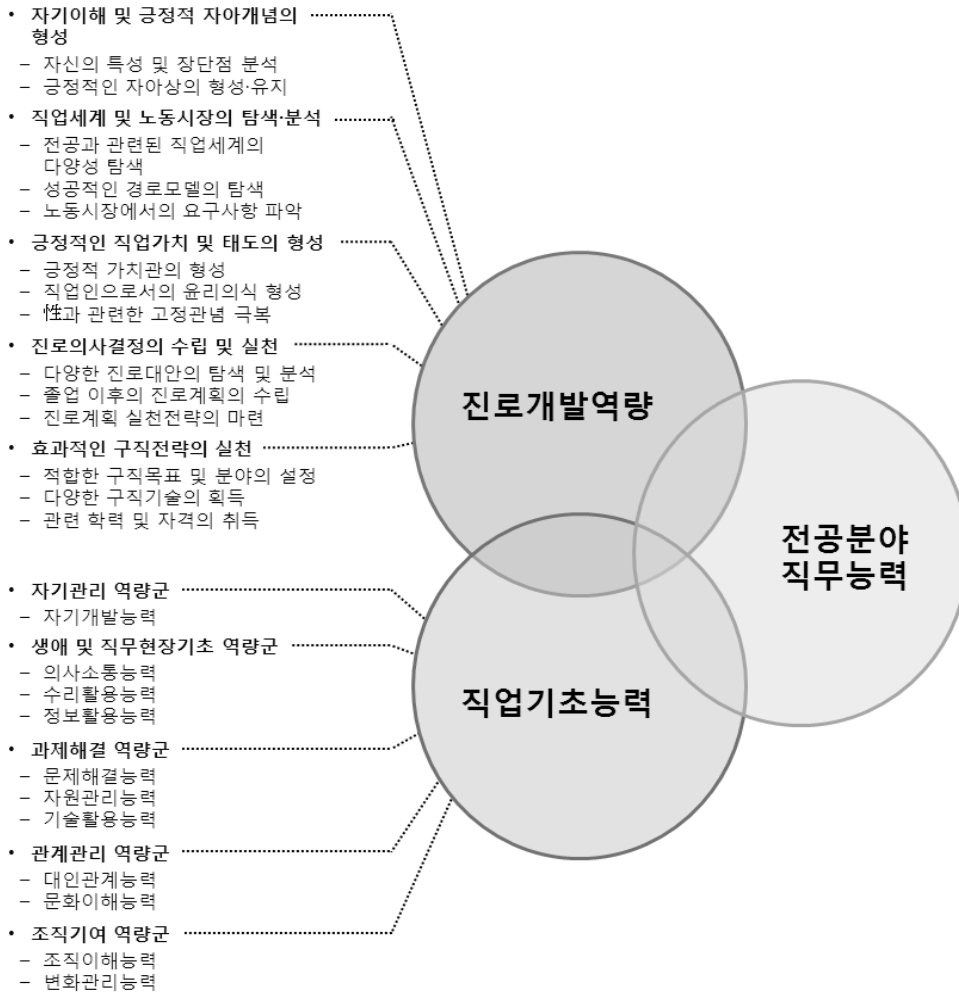
여덟째, 우수 취업률 특성화고에서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재학 기간 중 산업체 경험 제고를 위한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단위 학교별 산학연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즉 종전의 학교교육에서의 부가적인 활동에서 앞으로는 공식적인 교육활동으로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수 취업률 특성화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현장 중심적인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례가 확대·보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특성화고 취업지원 운영 방안

1.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으로의 진학과 산업체로의 취업 및 창업이 모두 가능한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이러한 이유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요구 받는다. 이는 특성화 고교생에게 적극적인 진로개발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성화고 진로·취업지도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목표는 이와 같은 특성화 고교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교생에게 요구되는 진로개발역량과 특성화고 학생에 특화된 진로개발역량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는 시각도 타당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화고에 입학하였지만, 중학교 재학기간 까지 충분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진로성숙의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에서도 자신과 직업세계의 탐색에서 성공적인 직업세계 및 고등교육으로의 이행에 이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적절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강조됨에 따른 다양한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높다. 이러한 견해에는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역량과 전공 분야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이 특성화고 재학 중에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졸업 이후의 효과적인 진로전환(career transition)을 위한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전환을 위한 역량에는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 및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환경 등에 관한 탐색과 그에 따른 진로설계 및 실천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어느 분야로의 취업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역량들, 예를 들어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한 직무수행능력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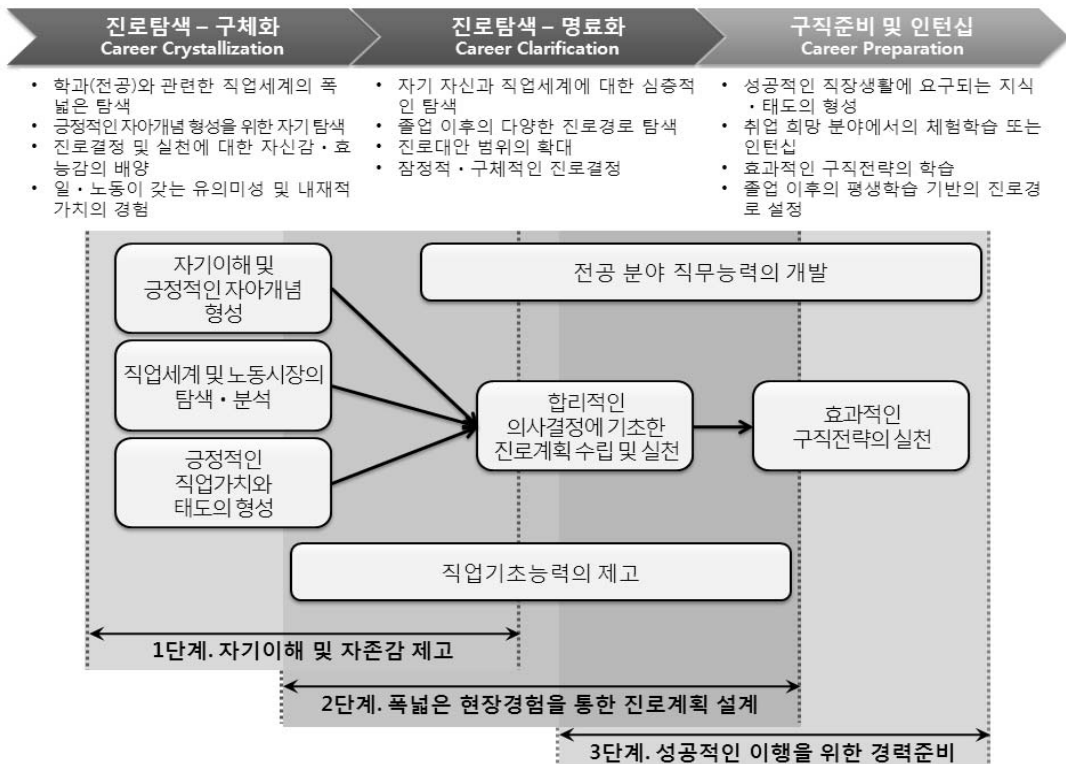


주: 1) 직업기초능력의 세부 요소는 이종범 외(2009) 참조
 2) '전공분야 직무능력'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요소로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요소가 진로·취업지도의 범위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림 1] 특성화고에서의 진로·취업지도의 영역 및 내용

2.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개발역량의 제고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및 계속교육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개인적 배경, 가정환경, 지역적 특성, 소속 학과 및 계열, 앞으로의 진로계획, 학력수준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학교 졸업 직후의 노동시장 및 계속교육의 이행과, 그 이후의 장기적인 진로경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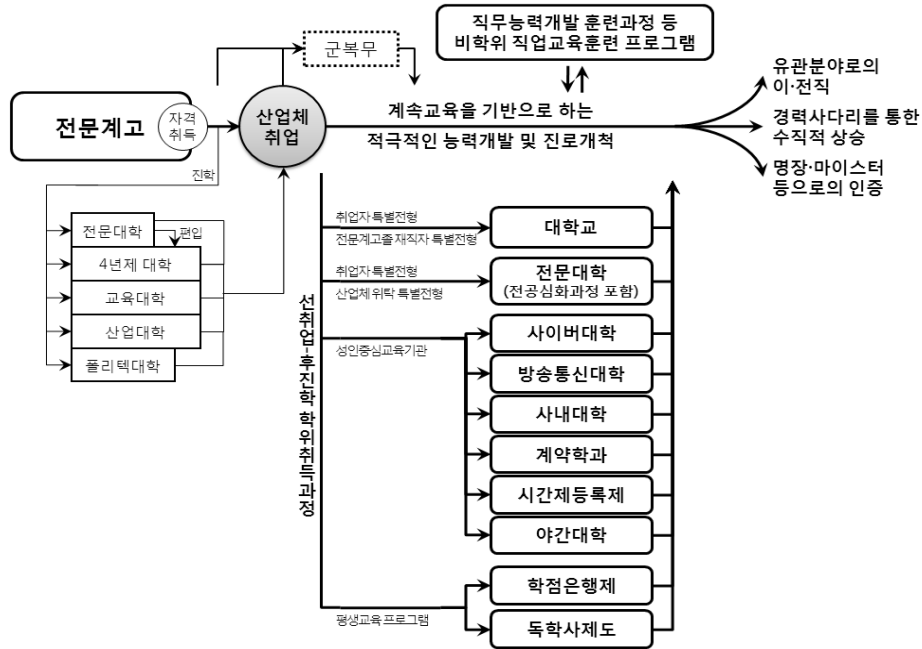


[그림 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의 체계도(안)

3. 구체적인 진로경로나 비전 제공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체적인 진로경로나 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중·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단순히 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과 진학 모두 가능하며, 관련 직업이나 관련 대학학과로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방식의 단순함은 중·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 선취업-후진학의 정책적인 기조와 관련하여 재학 기간 또는 졸업 이후에 어떠한 직종으로의 이동과 어떠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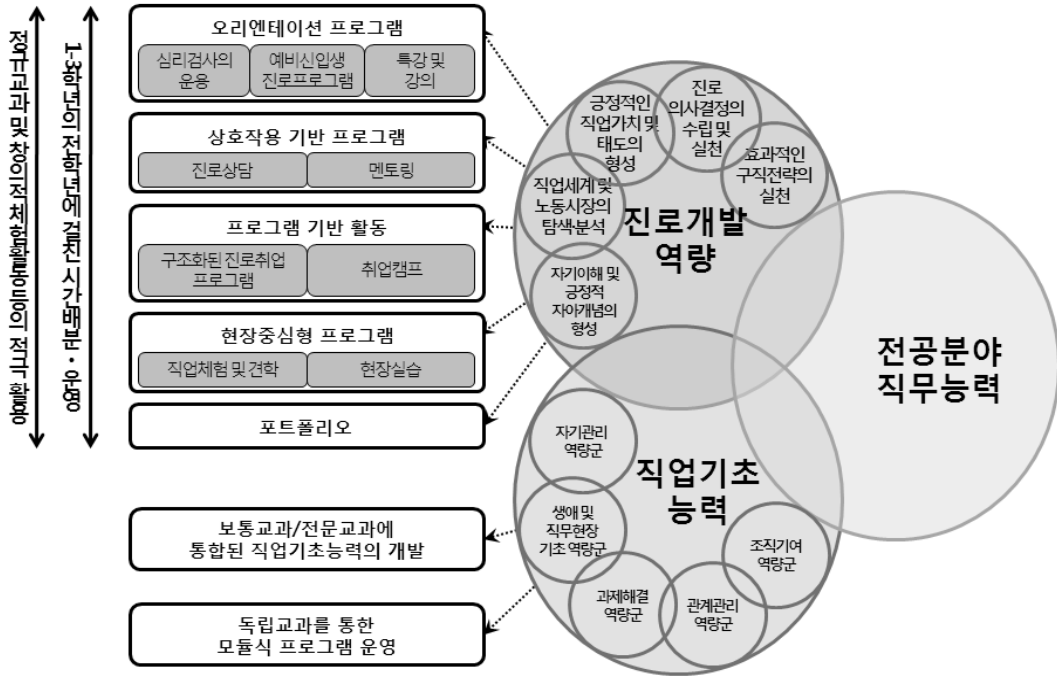
진로경로(career path)에서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졸업 이후에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career options)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고 졸업 직후에 선택 가능한 대안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과 산업체로의 취업(창업 포함)이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이후에도 졸업 후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체 취업 이후의 과정에 대한 거시적인 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에서는 ‘선취업-후진학’이라고 부르는 Work-to-School 체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Work-to-School 체계에는 직무능력제고를 목표로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위과정도 일반적인 성인중심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체제 이외에 몇 가지의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계속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직무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진로를 개척하여 유관분야로의 이·전직, 경력사다리를 통한 수직적 상승, 또는 명장이나 마이스터 등의 인증으로의 진로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진로경로는 전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개략적인 것이며, 학교의 계열이나 지역적 특성,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경로 모형(안)

4.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연계성 강화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및 계속교육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①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실시, 예비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또는 특강 및 강의, 취업 및 진학설명회, ② 학생과 교사, 상담자, 졸업생, 산업체 관계자 등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진로상담 및 멘토링, ③ 구조화된 진로·취업지도 프로그램 및 취업캠프, ④ 현장 중심의 현장견학,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⑤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준비를 위한 이미지메이킹,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프로그램, ⑥ 지속적인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들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단계별로 체계화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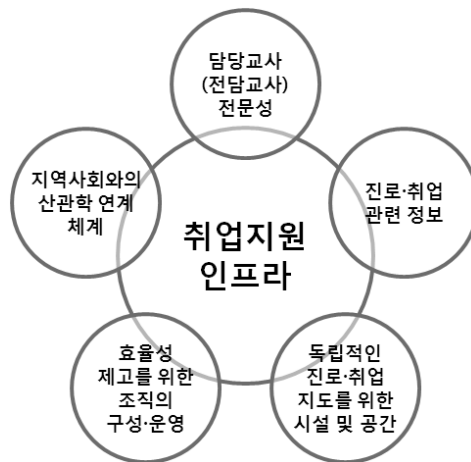
주: 1) ‘전공분야 직무능력’은 본 연구에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지원 활동에 있어서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하는 요소임.
 2) 세부 취업지원 활동별 구체적인 사항은 IV장 참조.

[그림 4] 특성화고 진로개발역량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 활동의 구성

또한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단위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나 실습·실습 등을 통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개발, 자격취득 과정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계획 등에 반영하는 계획성 및 체계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시작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5. 교내외 다양한 자원의 활용

효과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고는 교내·외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즉 단위 학교의 모든 교사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취업정보센터와 담임교사 및 교과교육 교사와의 긴밀한 상호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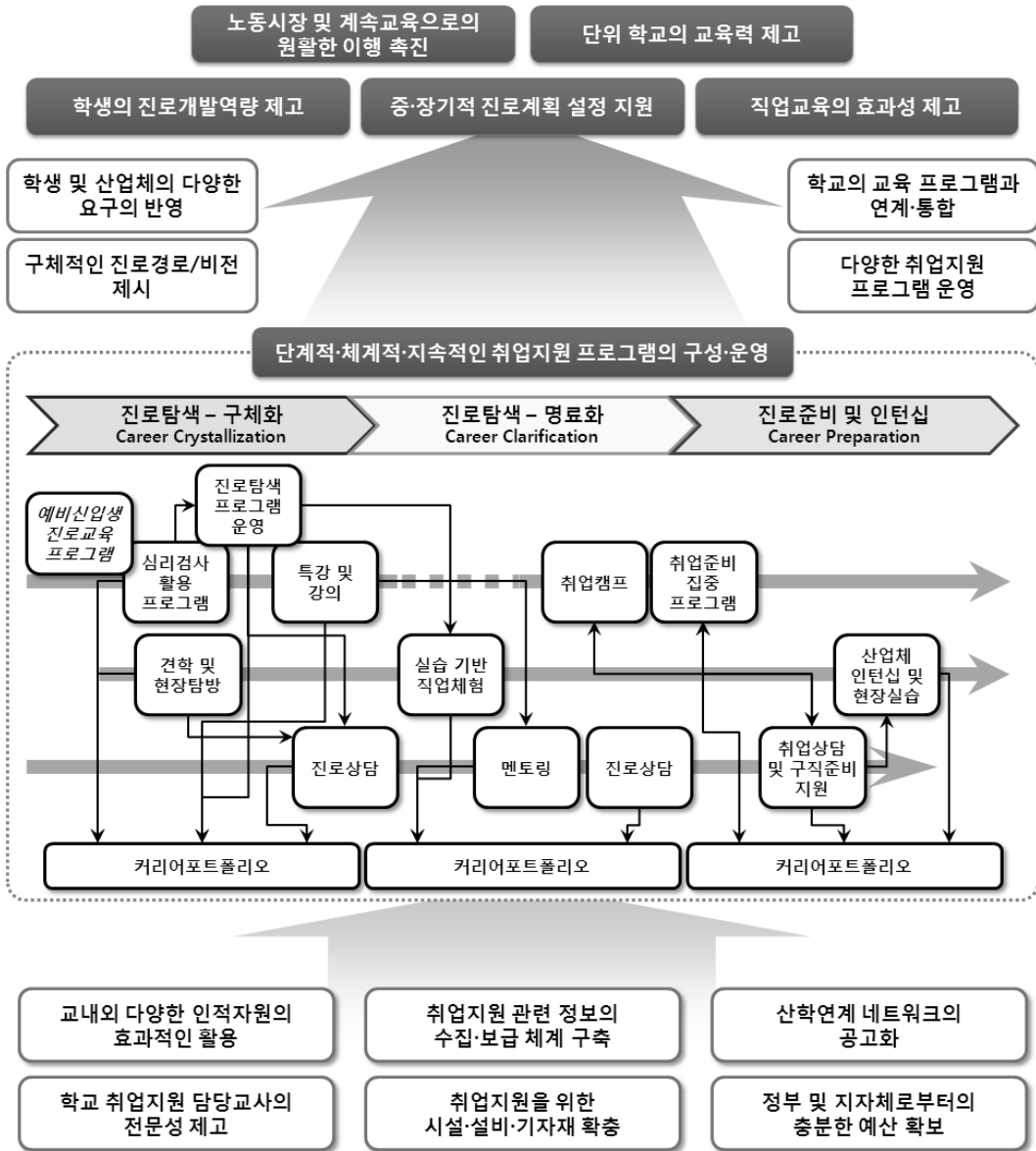


[그림 5] 특성화고 진로·취업지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5가지 요소

또한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위한 산학연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갖는 재정적 자원의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가능성 등의 효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6. 종합

이러한 특성화고에서의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의 기본 방향